

사·부·대·중

회암사 선각왕사비

우리나라는 석조 불교 유물이 풍부한 나라다. 그 중 회암사는 3대 회상으로 불리우는 지공(指空) 나옹(懶翁) 무학(無學)선사의 부도와 비가 있다. 나는 96년 2월 말 잔설이 뿌리는 날 학위는론 준비로 답사차 갔었다. 그 때 지공의 '삼산양수지기(三山兩水之記)'를 생각하며 기울어



도각스님 <동국대 강사, 불교사>

사사업은 향후 3년이면 마무리 짓게 된다. 조사가 끝나면 본당과 방장실 그리고 유물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 때가 되면 복원된 선각왕사비를 회암사 전시관에서 다시 볼 수 있다하나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중단은 1996년부터 전국 교구본말사 1천여개 사찰의 2만 5천여점의 불교문화재를 조사하였다. 이 작업은 2003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고적조사는 1942년 일제시 조선총독부에서 본 말사 소장 목록을 조사하여(조선보물고적자료)를 발간한 것이 최초이다. 현재 중단에서는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불교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정부나 종단 차원만이 아닌 전 국민적 관심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각자가 불교문화의 수호를 화두로 삼아 전국을 무대로 수행하는 자제만이 문화재 도난 사건 및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불교와 아나키즘

자연론적 세계관

자주적인 개인

공동체의 지향

권위에의 저항

공통점 많다

아직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의 강좌, '에코 아나키즘', 불교환경교육원이 운영하는 환경교육강좌(생명운동 아카데미)는 열다섯번째 주제로 '에코 아나키즘'을 잡았다. 이 강좌에는 대학·대학원생과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40여 명이 동참했다. 4월 27일 '21세기, 왜 다시 아나키즘으로 오는가?'(구승희 동국대 윤리학과 교수)로 시작한 강좌는 매주 한 차례씩 열리며, 15일 막을 내린다. 13일에는 '에코 아나키즘과 21세기의 사회운동'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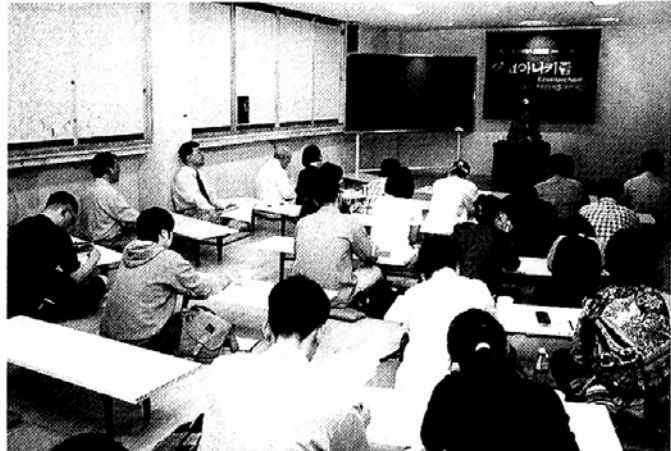
최근 우리 사회에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코 아나키즘 강좌도 그렇거니와 한국아나키즘학회의 창립(2월 17일), <아나키즘-국가권력을 넘어서>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 등 관련 책자의 출판도 눈에 띈다. <불교평론>은 '아나키즘의 불교적 특성'을 주제로 논단을 마련하기도 했다.

에코 아나키즘인가. 테러리스트, 니힐리스트 또는 '천진난만한 꿈의 옹호자' '뒤죽박죽의 혼란된 실교자'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역사 속에 묻혔던 아나키즘이 21세기의 벽두에 왜 주목받는 것일까.

한국아나키즘학회 김성국 회장(부산대 사회학과 교수)은 시민·사회운동의 이념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아나키즘을 주목한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이념적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가 현존하는 사회적 모순을(예컨대,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을 비롯하여 환경 및 생태 파괴, 여성과 인종 문제, 평화와 폭력의 문제 등)을 이론적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승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관계자는 "강원과 대학은 환경과 생활 자체가 다른데 승가고유의 정체성을 무시한 명칭사용은 일방적인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일반대학과는 분명히 다르다. 위계 질서가 엄연하고 깨달음의 기초소양을 익혀야 하는 수행이 필수적인 곳이다. 강원에는 일반 대학이 흉내 내지 못하는 전통과 특성이 있다.

다행히 교육원이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원 결의를 통해 강원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반대학에 대한 학력 콤플렉스가 아니라면 승가대학이라는 명칭을 고수할 명분은 더 이상 없는 듯하다. 종법상의 명칭 정정 문 제만 남았다.



◊불교환경교육원이 마련한 에코 아나키즘 강좌. 40여명의 수강생들이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아나키즘이란

아나키즘 하면 일제하 무장독립투쟁을 주장했던 단체 신재호 선생이 떠오른다. 아나키즘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말에서 반대를 뜻하는 안(an)과 권위적인 통치를 뜻하는 아르코스(archos)에서 유래했다. 모든 강제적 권위에 저항하며 자유를 지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아나키즘이 하나의 이념으로서 자리잡은 것은 18세기 말 유럽, 정치적 격동기에 자유와 연대를 기치로 내세웠다. 1930년 이후 사회진 이념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60년 대 미국의 월남전 참전, 유럽의 학생운동 그리고 90년대 공산주의 붕괴 이후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는 가운데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환경운동이 세계적인 조류를 형성하면서 '에코 아나키즘'은 독자적 활동 참여, 국가를 비롯한 모든 권위를 부

18세기 말 유럽서 이념화 될 권위주의...자유 지향

인 영역을 구축했다. 여성운동, 공동체운동, 시민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30년 이후 맥이 끊겼던 우리나라의 아나키즘은 최근 대구, 부산 아나키즘연구회에 이어 한국아나키즘학회의 창립으로 아나키즘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번역한 것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였으며, 이를 빌미로 일본제국주의의 탄압을 받았다. 아나키즘에 대한 책으로는 <아나키·환경·공동체>(구승희, 도서) <한국 아나키즘 시와 생태학적 유토피아>(김경복, 다운샘) <아나키즘>(우두코, 형설사) <아나키즘-국가 권력을 넘어서>(볼프, 책세상)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조세현, 책세상) 등이 있다.

목탁소리

한 명우 (취재1부 기자)

5월 29-30일 이틀 동안 직지사에서 열렸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교직원 연합회'에 참석한 전국 18개 강원도의 강주·강사·중강 등 45명의 교직원 스님들은 한결같이 강원과 대학교육의 목적과 과정이 엄연히 다른 만큼 이제 '승가대학'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예전의 '강원' 명칭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이 승가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은 조계종 개혁종단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96년 승가대학령을 제정하면서부터다. 당시 승가교육의 개혁을 외쳤던 조계종단은 교육을 조직화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과 중앙승가대, 동국대를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묶으면서 강원 명칭을 승가대학으로 바꾸었다. 강원을 일반 정규대학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계획도 명칭을 바꾸게 된 주요 이유였다. 물론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강원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승가교육개혁이라는 당위성에 밀리고 말았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현재 강원뿐만

'강원' 명칭 회복하자

아니라 교계 관계자들 역시 다시 강원이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송광사 강주 지운스님은 "강원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자구적 의미를 넘어서 한국불교계의 호흡 그 자체인데 명칭이 바뀌면서 전통이 무시되고 승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관계자는 "강원과 대학은 환경과 생활 자체가 다른데 승가고유의 정체성을 무시한 명칭사용은 일방적인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일반대학과는 분명히 다르다. 위계 질서가 엄연하고 깨달음의 기초소양을 익혀야 하는 수행이 필수적인 곳이다. 강원에는 일반 대학이 흉내 내지 못하는 전통과 특성이 있다. 다행히 교육원이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원 결의를 통해 강원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반대학에 대한 학력 콤플렉스가 아니라면 승가대학이라는 명칭을 고수할 명분은 더 이상 없는 듯하다. 종법상의 명칭 정정 문제만 남았다.

학회 창립·잇단 강좌등 '열기'

NGO 운동 이념적 기반 제공

정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를 좇는 사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렇게 보는 원인을 아나키스트들이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세현은 "아나키스트의 도덕적 충동이나 건설에 대한 열정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여러 정치파벌들이 혼란을 제공하는 테러의 방법을 그들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는 책략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옹호하고 있다.

현대의 아나키즘은 테러와는 거리가 멀다. 또 신채호, 간디, 톨스토이, 쏘로 같은 이들을 아나키스트로 분류하듯 그 색깔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아나키즘이 가진 특징을 자연론적 사회관, 자주적인 개인, 공동체의 지향, 권위에의 저항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

이 네 가지 특징이 불교와 맞닿는 지점이다. 종교와 사상체계라는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아나키즘이 만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불교와 아나키즘은 모두 21세기의 사상적 대안으로서 주목받

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방영준 교수(성신여대 윤리교육과는 <불교평론> 불호에서 아나키즘이 지니고 있는 '무집착의 논리' '권위에의 저항' '자연론적 세계관과 생태주의'를 불교를 불교이게끔 하는 공, 선, 연기론과 조응시켜 불교와 아나키즘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논리에 집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아나키즘의 사상 속에서 반야의 절대공의 체계를 말하고 있다. 또한 아나키스트들이 논리보다는 실천을 통해 자기수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반야의 실천성과 유사하다."

모든 강제적 규율과 권위 저항하는 것은 아나키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인간의 자율성과 자주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바탕하고 있다. "불교가 지구상의 종교 중에서 제일 저항적인 종교이며, 제일 권위를 싫어하는 종교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방 교수는 "아나키즘의 사상 안에서 해탈의 맛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나키즘은 공간적으로 서양의 산물이지만, 자연론적인 세계관과 생태주의적 성격은 불교의 체취를 뽐낸 풍경이다. '인간과 자연의 친교와 합일은 인간과의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더욱 근본적'이라고 말한 쏘로우가 대표적이다. 방 교수는 아나키즘의 자연론적 세계관을 화엄의 생명철학으로 보고 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인연을 맺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주의 대생명을 조직하고 있는 모습을 <화엄경>에선 제망무에(帝網無綱)라고 표현하고 있다."

불교가 추구하는 대자유,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을 위해 아나키즘은 불교의 사유와 실천을 더욱 폭넓고 깊게 그리고 힘있게 밀어줄 수 있다. 여기에 불교에서 아나키즘에 관심을 두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불교와 아나키즘'을 신중하게 보는 시각도 많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은 "불교와 아나키즘의 관계는 불교와 인접학과의 연계를 하나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아나키즘은 불교의 사유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실천을 보조하는 기제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보는 아나키즘이다"고 가닥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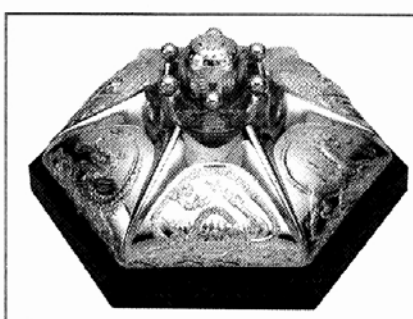
정성원 기자 swjung@buddhapa.com



소원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 청룡(靑龍) (우) 백호(白虎) (남) 주작(朱雀) (북) 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소원성취·안전운행·사업흥왕·불화방지·가내화합·시험합격·악귀퇴치·극락왕생·선신수호·삼재예방·관재소멸·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육기방이 확 달라졌습니다

- ❖ 기 격
- 1호 : 10만원
- 2호 : 20만원
- 골드호 : 30만원
- 플래티늄호 : 40만원

❖ 법칙의 법  
1. 모여들어 하는 힘 2. 재산을 물고 들어오는 힘 3. 건강하게 지내는 힘 4. 부지런한 힘 5. 단결한 힘 6. 정직한 힘 7. 지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당육기방은 별집과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명당육기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하고 돈이 많이 온다고들 하며,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분들도 많습니니다. 그리고 육기방은 묘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니다.  
\* 별들은 좋은 명당에만 집을 짓고 삽니다.  
❖ 밑에서 매길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니다  
수많은 가정들의 속을 깊숙히 들여다보면 힘되고 괴롭고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않는 일들이 많습니니다. 또한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즉나 사나 하는 속사정 가운데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니다.  
❖ 기정에 꼭두심시오  
항상가정에 천기와 지기 그리고 좋은 육기의 정기가 움직는 기운을 받게 해줍니다. 항상 근심걱정 없는 화목한 가정이 될 것 입니다. 언제 닥쳐올 줄 모르는 불행과 액운을 막아주고 항상 가정을 수호해주는 방패로서 사용하십시오. 항상 가정에 좋은 정기가 모이고 움직이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니다.

氣란?현실 입니니다. 氣란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돌게하고 거짓말 같이 믿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곳이든 대도시 마을 가정을 보아도 좋은 기류가 흐르고 모이고 뭉친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많이 모여들어 큰돈이 움직입니다. 명당육기방은 氣가 뭉쳐 있으므로 가정에 놓아 두신분들은 기류에 따라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 나고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다하여법칙을 어기지말라." ❖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고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화목하다. 불행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간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불자님께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 051) 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명당육기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들의 가정에서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 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